

지방에서 건축하기

Being an architect
in the province

글. 최현규
Choi, Hyunkyu
M.A.C.K 건축사사무소

15년 전 나는 서울 대학로에 있던 설계사무실을 퇴직하고 고향 근처의 시골로 이사를 했다.

분당으로 감리를 나갈 예정이어서 경기도 수지로 아이들과 함께 이사를 했는데, 감리 나갈 날이 차일피일 미뤄지더니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을 수지에서 대학로까지 출퇴근하게 됐다. 수지로부터 대학로까지 출퇴근하는 데에는 편도 2시간이 걸렸고, 긴 출퇴근시간도 그렇지만 야근이며 철야며 몸이 지칠대로 지쳐있었던 상황이었다. 초등학교 다닐때까지 아이들을 시골에서 키우겠다고 한 와이프와의 약속도 있었고 또 다른 이런 저런 이유로 나는 시골행을 선택했다.

당시는 SNS가 막 확산되던 시기로 사람들이 블로그를 운영하며 자기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인터넷을 통해 공유하기 시작했고, 다운시프트라는 주제가 유행하여 도시를 떠나 시골의 삶을 영위하며 생업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늘기도 했다.

그때 난 인터넷만으로 시골에서 건축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 같은 걸 가지고 있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영업을 하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해 사무실 임대료 내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처음 시골집에서 사무실을 오픈했을 때는 몇몇 지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일이 있어, 근근이 사무실을 유지해 갈 수 있었다. 또 시골에 사는 동네분들과도 사귀어 시골 농가주택을 설계하기도 했다. 하지만 농가주택 설계 몇 건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다행히 도시를 디자인하는 국제공모에서 상을 받아 도시와 관련된 일들이 생겼고

학교에서 강의 의뢰가 오면서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 물론 그것으로도 적절히 생계를 유지할 수는 없었다. 십 몇년이 흐른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사무실을 달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생각할 정도의 고비가 두세 번은 있었던 것 같다. 귀향 3년 후 나는 대전으로 사무실을 옮겨 시골에서의 재택근무를 마쳤다.

창밖에 올해의 첫눈이 내리고 있다.

10여 년전 시골서 재택근무를 할 때의 겨울이 떠오른다.

시골에 내려간 다음해 3월 폭설이 내려 근 10여 일을 집안에 묶여 있던 적이 있다. 당시 며칠은 불가피하게 그리고 그 다음 며칠은 자발적인 칩거로 집을 떠나지 않았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자켓 단추보다도 큰 눈송이들...

허공을 덮은 눈에 의해 찾아온 쓸쓸해 보이는 어둠...

사람의 손이 타지 않은 앞산을 오를 때 내가 새긴 깊은 눈발자욱..

그리고 나에게 찾아온 고립감...

마치 자코메티의 조각과 맞닥뜨린 것과 같은 내 내면의 수축...

그 즈음 나에게 지역에서 건축을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었는 지도 모른다.

선부른 희망 그리고 찾아온 고립, 두려움.

그리고 나의 건축이란 그 두려움과 자연스레 이별해 가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다.



최현규 건축사 · M.A.C.K 건축사사무소

최현규 건축사는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두우건축과 이로재, 김영준도시건축에서 실무를 쌓았다. 2004년 M.A.C.K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해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개념공모전에 입상한 후 도시와 건축 중간 영역의 다양한 작업을 해 왔다. 현재 행복도시 상업업무용지 BA, 행복청 공공건축가로 활동 중이고 목원대학교와 한남대학교 등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한밭대학교에서 친환경 건축 관련 박사 논문을 진행 중이다. 다수의 주택, 종교, 상업시설을 설계하였고, 2016년 중앙일보 친환경건설산업대상을 수상한 <인양 마드리드>를 설계했다.

mack21@empas.com